

## 전북지역에서의 한/마한/백제/가야

최완규\*

###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맺음말     |
| 2. 韓에서 馬韓으로  | 참고문헌       |
| 3. 마한에서 백제로  | <Abstract> |
| 4. 전북지역 가야문화 |            |

### 국문초록

전라북도는 서부 평야지대와 동부 산간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서부지역에는 마한과 백제문화가 근간을 이루고 있고, 동부지역에는 마한과 백제문화와 더불어 가야문화가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다.

서부지역의 익산 미륵산은 금강과 만경강 수계를 가르는 중심 지역에 해당한다. 미륵산 북으로는 계룡산까지 펼쳐진 분지형 평야지대에는 금강수계의 논산천과 강경천이 흐르고, 남으로는 모악산에 이르는 평야지대에는 만경강이 흐르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마한 성립이전의 청동기시대의 많은 유적의 분포를 통하여 이 지역은 한(韓)문화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경강유역에서는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전개된 군집을 이루고 있는 토광묘라는 묘제와 제의 관련 유적을 통해서 이 지역이 기원전 3세기 전후한 시기에 마한 성립의 고고학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서부 평야지대에는 마한문화를 근간으로 백제에 의한 영역화 이후에도 마한 전통의 분구묘가 5세기 말까지 지속해서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 백제 사비시대에 들

\* 전북문화재연구원 이사장, E-mail: wk8711@hanmail.net

어서 정읍 고부를 중심으로 설치되는 중방성의 기층세력으로서 마한 분구묘세력을 상징할 수 있다.

동부지역의 가야문화의 특징은 중심고분군들의 입지에서 보면 지리적으로 분지 지형을 택하여 방어가 유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아영분지의 가야고분에서 출토된 계수호를 비롯한 중국제 유물을 통해 백제와 정치적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장계분지의 가야고분에서 출토되는 백제계 토기를 통해 백제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심에는 논산 연산지방의 가야계 고분에서 그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다.

백제 사비시대에 들어서면 전북 가야와 백제의 친연적 관계는 지방조직인 남방성이 남원에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주제어 : 한, 마한, 백제, 가야 고분, 중방성, 남방성

---

## 1. 머리말

전라북도는 동고서저의 지형으로서 서부 평야지대와 동부 산간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지역에는 각각 문화적 특징을 달리하고 있는데, 서부 평야지대에는 마한과 백제문화가 근간을 이루고 있고, 동부 산간지역에는 마한과 백제문화와 더불어 가야문화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경을 주된 생업 경제로 삼았던 고대사회에는 금강하구유역과 만경강 지류를 중심 지역이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미륵산에서 남으로는 모악산에 이르는 분지형 공간으로 그 가운데에는 만경강이 흐르고 있고, 북으로는 계룡산을 경계로 또 하나의 분지형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는 논산천과 강경천이 금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노령준령이 병풍처럼 휘감고 있어서 천혜의 방어벽이 형성되어 있다. 곧 인간의 문화 활동이 선사시대 이래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미륵산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의 공간지대에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걸쳐 수많은 문화유적을 남기고 있다.

서부 평야지대의 고고학적인 조사는 익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전주 혁신도시 일대의 조사를 통하여 만경강 문화권역으로 설정이 가능할 만큼 많은 주목되는 유적들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바로 청동시시대 전기에서 후기에 걸치는 집자리 유적과 분묘유적인데, 중국 사서에 보이는 한(韓)과 마

한성립과 관련되는 고고학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미륵사지를 비롯한 백제 문화유산은 미륵산의 남쪽의 금마 일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익산지역의 역사문화권역을 금강유역 권역에 포함하여 다루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금강유역과 만경강유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계점에 미륵산이 자리하고 있음도 간과되어 왔다.

전북지역 고대의 다양한 문화양상을 분묘의 속성을 통해서 살펴보면 근초고왕이나 무령왕대에 백제의 남정 이후 백제의 중앙문화가 확산하기 시작하여 백제의 지방통치 거점이 되는 중방성과 남방성 설치 이후 백제문화로 본격적인 편입이 이루어진다. 특히 백제 무왕대 익산 천도 이후 마한계 세력이 백제의 주요 세력으로 등장한 이후 나주 북암리 3호분에서 보이듯이 백제의 사비유형의 석실이 마한 분구묘에도 직접 채용되게 된다. 이는 마한문화가 늦은 시기까지 지속되고 있었던 영산강유역에도 완전하게 백제의 문화적 동질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마한과 백제문화의 전통적 기반은 동부 산간지역의 가야 문화에도 예외 없이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음도 확인된다. 곧 동부 산간 지역의 가야문화의 기층문화로서 마한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의 남정과 더불어 백제와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전북지역 가야의 정체적을 확립해 나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분묘의 구조적 측면과 출토유물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전북지역의 마한과 백제와 가야의 문화적 양상 및 전개 과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백제의 지방통치의 거점이었던 중방성과 남방성의 설치 배경 및 그 내용을 살펴보고, 마한의 강력한 기층문화 위에서 가능했던 백제 왕도 익산에 대한 실체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결국 전북지역의 고대문화를 재구성한다는 측면에서 마한 백제와 가야 정치체와의 상호관계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 2. 韓에서 馬韓으로

### 1) 韓문화의 중심지

익산지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많은 청동유물들이 신고나 수습되면서 청동기문화의 중심지로 주목되었고, 이러한 고고학 자료를 마한과 관련짓고자

하는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바탕으로 김원용 선생은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60km 이내에 분포된 청동유물 출토유적에 주목하고 익산문화권<sup>1)</sup>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리고 금강, 만경평야가 마한의 근거지이며 익산지역 청동기 인들은 후에 마한인으로 발전하는 이 지역의 선주민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충청·전라지역의 청동유물과 공반되는 철기의 성격을 마한 사회 소국성립과 관련짓고 그 배경에는 서북한 지방의 정치적 파동과 관련된 주민 이동에서 비롯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준왕의 남천 사건을 예시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견해들은 매우 타견이라 할 것이며,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자료들로서 전기와 중기에 해당하는 주거유적과 송국리식 묘제들이 속속 발견되어 왔다.

한국 고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마한에 대해서 문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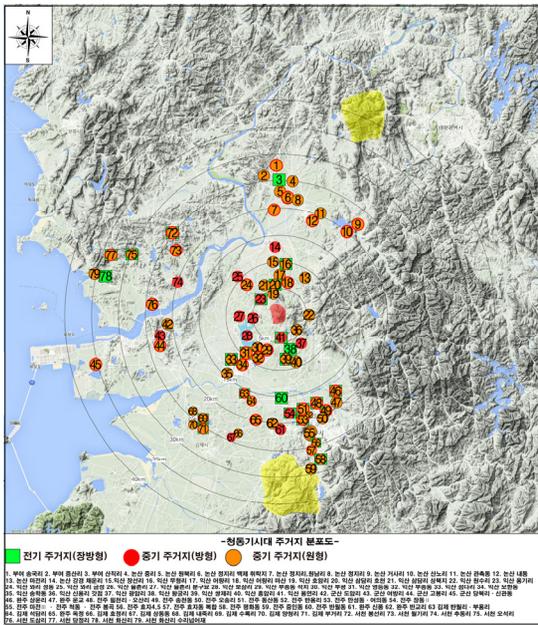


그림 1. 청동기시대 주거지 분포도

료를 바탕으로 구하는 시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마한을 종족의 명칭이나 문화 계통적인 의미로 보는 시각이며, 둘째는 지연적, 정치 사회적으로 통합된 정치체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전자의 관점에서 마한을 바라본 대표적인 연구자는 민족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인데, 그는 『전후삼한고』(1925)와 『조선상고사』(1931)에서 삼한을 “전삼한”과 “후삼한”으로 구분하였다<sup>3)</sup>. 이러한 전후 삼한의 구분은 고조선 준왕의 남쪽

으로 이주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전삼한”은 단군조선이 “신(眞)조선” “불(番)조선” “말(馬)조선으로 분화한 것이며, 말조선을 제외한 위치는 중국의

- 1) 김원용, 1977 『익산지역의 청동기문화』 『마한·백제문화』 제2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2) 전영래, 1990 『마한시대의 고고학과 문헌사학』 『마한·백제문화』 제12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3) 신채호, 1982, 『삼조선 분립시대』 『조선상고사』, 진경환 주역, 인물연구소.

요서와 요동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말조선은 한반도의 기자조선으로 마한의 전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마한을 비롯한 한(韓)은 북쪽의 고조선을 구성하고 있던 종족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며, 북에서 남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병도는 준왕의 남천으로 비로소 남한지방에 한이라는 종족명이 등장하고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남한 전체를 한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신채호와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후자의 관점은 지연적인 또는 사회적인 단위의 정치체로 보는 시각으로 최근 연구자들의 통설이 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마한을 비롯한 삼한을 소국 연맹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근거는 『삼국지』나 『후한서』에서 고조선 준왕의 남천지를 “韓地”로 특정하고<sup>4)</sup> 있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에는 준왕의 남천 이전부터 한이 성립되어 있었고, 이것이 곧 마한이라는 것이다. 곧 북방에서 종족이 이동하여 한을 성립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선주 토착 집단들의 점진적인 발전의 결과로 韓이 대두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넓게 퍼져 있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문화권이 형성되며, 한 소국들이 연맹체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 마한의 성립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결국 미륵산을 중심으로 북으로 금강유역과 남으로 만경강유역에 분포된 청동기시대의 전기나 중기의 유적들은 ”한(韓)“문화의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2) 마한성립의 중심지

마한 성립의 주체인 토광묘 집단은 금강이나 만경강 유역에 갑자기 안착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마중물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들의 흔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선행적 집단에 의해 축조된 묘제는 토광묘를 기본 속성으로 하지만 내부에 목관을 안치하고 이를 둘러싸 둘러싼 소위 “적석목관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부장된 유물에서 보면 점토대토기나 세형동검을 비롯한 토광묘의 출토유물과 성격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가 동일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적석목관묘는 한반도 서해안 일대의 경기 충청 전라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

4)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 “侯準既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 將其左右宮人走入海居韓地 自號韓王 其後絕滅 今韓人猶有奉其祭祀者”  
『後漢書』東夷列傳 韓條 “初朝鮮王準爲衛滿所破 乃將其餘衆數千人走入海 攻馬韓 破之 自立爲韓王 準後絕滅 馬韓人復自立爲辰王”

견되고 있는데, 만경강유역의 토광묘처럼 군집을 이루지 않고 대부분 1기~2기 정도 분포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 분묘에서는 세형동검이 다수 부장되고, 특히 기원전 4세기경에 해당하는 나팔형동검, 방패형동검, 검파형동검과 더불어 팔주령, 동경, 간두령 등 의기와 관련된 유물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곧 적석목관묘의 피장자는 종교적 제의를 주관함으로써 오늘날 사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5)</sup>.

이러한 적석목관묘의 분포 의미는 금강이나 만경강유역에 토광묘가 본격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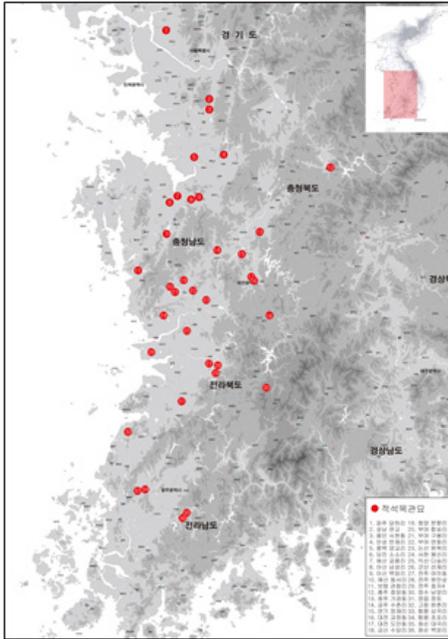


그림 2. 적석목관묘 분포도

들어오기 이전에 선행적으로 들어온 집단으로서 청동기를 비롯한 문물을 분배해 주고, 제의를 주관함으로써 세력화와 집단화를 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통성이 강한 지식묘와 송국리 묘제 영역에서는 강한 배타성이 작용했을 것으로 세력화를 꾀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적석목관묘를 축조한 피장자는 풍부한 제의적인 청동기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장으로서의 자자리매김하지는 않았다. 다만 기층 송국리문화나 지식묘 사회와는 차별되는 제의 주관자로서 이후 토광묘 축조인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올 수 있는 정보나 기회를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세기 중엽의 중국 사서인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는 “연나라에서 망명해 온 「위만」의 공격을 받은 고조선 「준왕」이 좌우 궁인을 거느리고 바다 건너 한지(韓地)에 와서 한 왕이 되었는데, 그 후 절멸되었다”라 기록되었다. 이후 5세기 중엽의 『후한서』에서는 『삼국지』의 내용을 동일하게 이어받고 있지만, 한(韓)을 마한으로 바꾸어 기술하고 있다. 이후 우리나라 사서인 『삼국유사』<sup>6)</sup>를 거쳐 『제왕운기』와 『고려사』<sup>7)</sup>에서는 구체적으로 금마를 마한의 개

5) 최완규, 2015, 『마한성립의 고고학적 일고찰』 『한국고대사연구』 79, 한국고대사연구회.

6) 『三國遺事』 1권, 紀異1, 馬韓 “魏志云 魏滿擊朝鮮 朝鮮王準 率宮人左右 越海而南至韓地 開國 號馬韓”

국지로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익산지역은 오래전부터 마한의 고도로 인식되어 왔다.

전북의 서북부에 자리 잡고 있는 만경강유역은 “마한의 분향”이라 일컬을 만큼 마한의 성립이나 성장과 관련된 많은 유적이 밀집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북쪽에는 익산 미륵산과 남쪽으로는 김제 모악산을 경계로 하고 동쪽에는 노령산맥이 막아주는 분지와 같은 지형이지만, 서쪽으로는 지평선이 보일 만큼 널따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러한 지형과 그 중앙에 흐르는 만경강의 풍부한 수량을 더해 농경을 영위하기에 천혜의 지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경강의 북쪽 익산지역은 일찍이 문헌이나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로 마한의 고도로 인식되어 왔지만, 금강유역 문화권역에 포함하여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익산지역의 대부분 유적은 실제로 금강이 아니라 만경강 수계에 있으며, 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금강유역과는 다른 문화적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경강문화권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만경강 남쪽의 전주·완주·김제 지역에서 마한 관련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특히 전주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완주 갈동유적 발견이후 마한 성립을 뒷받침하는 토광묘 유적들이 130여기 이상 붓물 터지듯 잇달아 확인되었다<sup>8)</sup>.

완주 갈동유적은 2003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전주 혁신도시를 관통하는 서부우회도로 개설과정에서 17기의 토광묘가 확인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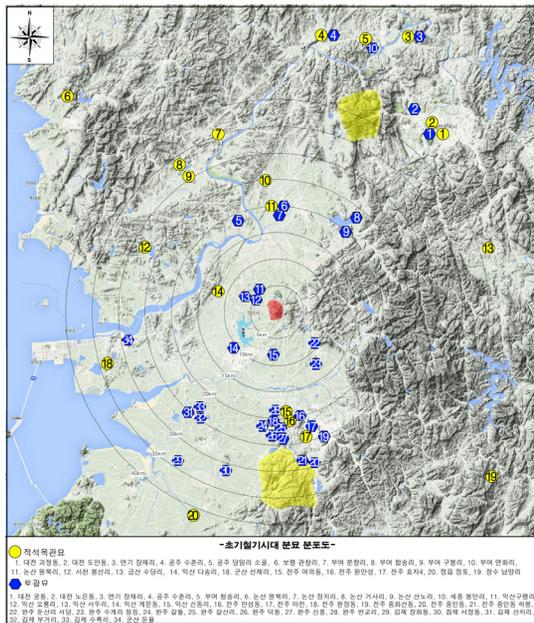


그림 3. 초기철기시대 유적 분포도

- 7) 『高麗史』 57권, 志11, 『地理』2 “金馬郡本馬韓國[後朝鮮王箕準 避衛滿之亂 浮海而南至韓地 開國號馬韓”
- 8) 한수영, 2011, 『만경강유역의 점토대토기문화기 목관묘 연구』 『호남고고학보』 제39집, 호남고고학회.

다). 이후 갈동과 인접한 덕동유적에서 5기의 토광묘에서 조문경과 세문경, 동과 등이 출토되었고, 원장동 유적에서는 5기의 토광묘 가운데 1호분에서 세형동검 5점과 세문경 2점이 확인되어 이 지역 단일 유구 가운데 가장 많은 청동유물이 출토되어 주목된다.<sup>10)</sup> 2011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밀집도를 보이는 신평유적에서는 81기의 토광묘가 확인되었고 각각의 분묘에서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세형동검, 동경, 철기류가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혁신도시의 유적들보다 위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 소규모의 토광묘들이 중인동에서 9기, 중화산동에서 15기가 확인되었다<sup>11)</sup>.

한편 군집을 이루고 축조된 토광묘 유적과 동일한 공간 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구상유구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와 제의와 관련되는 두형토기가 파쇄되어 공반되고 있다. 두형토기가 토광묘에서는 부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송 의례와 다른 형태의 제의 의례가 구상유구를 중심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후대의 문헌기록을 통해서도 마한사회의 제의 의례를 유추할 수 있다. 구상유구에서 보이는 제의 행위는 변화 발전되어 왔을 것인데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과 같은 존재는 농경사회에서 파종기와 수확기에 귀신에 제사를 주관하는 자와는 격이 매우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곧 천군은 당시 사회통합의 리더로서 마한 사회의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sup>12)</sup>.

이처럼 만경강유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전개된 토광묘라는 묘제와 제의 관련 유구에서 이 지역이 B.C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마한의 성립지, 곧 “마한의 분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조선 이후의 문헌 기록이나 전승되어 내려온 각종 설화나 민속놀이에서 보면 백제보다는 오히려 마한과 관련된 내용들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데, 곧 익산지역에는 마한 전통의 문화가 그만큼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익산을 비롯한 만경강유역에서는 백제 영역화 이후에도 백제의 묘제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5세기 후엽까지 마한 전통의 분구묘를 지속해서 축조하고 있는 점에서 강력한 마한문화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9)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완주 갈동유적』.

10) 전북문화재연구원, 2013, 『전주 원장동유적』.

11) 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전주 중화산동유적』.

12) 최완규, 2015, 앞의 논문.

### 3) 전북지역의 마한소국

중국의 역사책인 『삼국지』와 『후한서』에는 마한은 54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중 『삼국지』에는 각각의 국명을 기록하면서 큰 나라는 만여가, 작은 나라는 수천가(數千家)로서 총 십여만호(十餘萬戶)나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마한 소국의 위치나 사회구조 성격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에 따

〈표 1〉 전북지역 마한소국 위치 비정표

	지명	소국명	소국명	소국명
1	군산 회미	비리국(卑離國)(2/4)		
2	군산 입피	신흠국(臣鬻國)(1/3)		
3	군산 옥구	만로국(萬廬國)(2/4)	임소반국 (臨素半國)(1/4)	사로국 (駟廬國)(1/4)
4	익산	건마국(乾馬國)(2/4)	감해국(感奚國)(1/4)	
5	익산 함열	감해국(感奚國) (3/4)	염로국(冉路國)(1/3)	
6	익산 여산	여래비리국 (如來卑離國)(1/4)	아림국(兒林國)(1/4)	
7	김제	벽비리국 (關卑離國) (3/4)		
8	김제 금구	고탄자국(古誕者國)(1/3)	구사오단국 (白斯烏旦國)(1/4)	
9	부안	지반국(支半國)(2/3)		
10	정읍	초산도비리국 (楚山塗卑離國)(2/4)	첩로국(捷廬國)(1/3)	
11	정읍 고부	구소국(狗素國)(2/3)	고리국(古離國)(1/4)	
12	고창	모로비리국 (牟盧卑離國)(4/4)	일난국(一難國)(1/3)	
13	고창 흥덕	신소도국(新蘇塗國)(1/4)		
14	전주	불사분사국 (不斯濱邪國)(2/4)		
15	완주 화산	지반국(支半國)(1/3)		
16	진안	염로국(冉路國)(1/3)		
17	순창	소석색국(小石索國)(1/3)		
18	임실	대석색국(大石索國)(1/3)		
19	남원	고랍국(古臘國)(1/4)		
20	남원 운봉	불운국(不雲國)(1/3)		

괄호안의 숫자는 예시한 전북지역을 지목한 연구자 수/예시한 마한 소국을 비정한 연구자 수를 의미함

라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으므로 각 소국의 구체적인 실상에 대한 접근은 매우 어려운 편이다. 마한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 충청, 전라의 한반도 중서부 서해안 일대로 인식되고 있으며, 마한의 각 소국도 이 지역 내에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에는 마한 성립과 관련되는 초기 단계의 토광묘부터 마한 발전기에 급격하게 확산하는 분구묘 계통의 분묘들이 광범위하게 연속적으로 축조되었다. 또한, 백제의 지배하에 편입된 이후에도 마한의 정치·문화 중심지였던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층문화로서 마한 분구묘의 전통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한 소국의 위치 비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후대의 지리지에서 발음이 유사하거나 표기 방식에서 상관성이 있는 지명을 찾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명의 음운학적인 방법을 통한 위치 비정은 확증하기 어렵고, 연구자 간의 견해 차이도 심해 마한 소국의 정확한 위치와 국명을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문헌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고학적 자료의 이용은 마한 소국의 명칭에 대한 접근은 어렵지만, 소국의 공간적 범위는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표는 정인보<sup>13)</sup>, 이병도<sup>14)</sup>, 천관우<sup>15)</sup>, 박순발<sup>16)</sup> 등 마한 소국의 위치 비정에 있어서 대표적인 연구자 4인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전북지역의 지명을 마한 소국으로 비정한 연구자의 수를 분모로 전북지역을 표에 보이는 마한 소국명으로 지칭한 연구자의 수를 분자로 해서 작성한 표임을 밝혀둔다.

위 표에서 보면 전북의 20개소 지역에 대해서 마한 소국이 비정 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고창의 모로비리국(牟盧卑離國)만이 4명의 연구자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익산 함열의 감해국(感奚國)과 김제의 벽비리국(關卑離國)은 4명 가운데 3명이 동의하고 있어 커다란 의견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부안의 지반국(支半國)과 정읍 고부의 구소국(狗素國)은 3명 가운데 2명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군산 회미의 만로국(萬盧國)과 익산의 건마국(乾馬國), 그리고 정읍의 초산도비리국(楚山塗卑離國)과 전주의 불사분사국(不斯瀆邪國)은 4명 가운데 2명이 동일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나머지 11곳의 마한 소국 위치 비정은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제시하면서 문헌 자료 분석의 한계를 실감하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소국의 위치에 대한 견해차가

13) 정인보, 1935, 『조선사 연구』.

14) 이병도, 1976, 『삼한의 제소국문제』,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5) 천관우, 1989, 『마한제국의 위치시론』,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6) 박순발, 2013, 『유물상으로 본 백제의 영역화 과정』, 『백제, 마한과 하나되다』, 한성백제박물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는 곳은 김제의 벽비리국(闕卑離國), 고창의 모로비리국(牟盧卑離國), 익산 함라 일대의 감해국(感奚國) 등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서기』 권 9 신공황후 49년조에 전북지역으로 추정되는 마한 정치체의 이름이 보인다.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석하면 백제 근초고왕 24년(369년)에 침미다례(枕彌多禮)를 정벌하자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읍(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이 백제에 자연스럽게 복속됐다는 것이다. 먼저 침미다례의 위치는 남해안의 해남지역이나 강진, 또는 고흥반도로 비정하며, 비리와 벽중은 내륙지역으로 인식하여, 백제가 해로와 육로를 장악하면서 마한을 복속시킨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17)</sup>. 다음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읍에 대한 지명은 크게 比利·辟中·布彌支·半古의 4읍으로 보는 견해와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의 5읍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는데, 4읍으로 보는 견해가 대체로 우세하다. 이에 따라 비리(比利)는 전주 혹은 부안, 벽중(辟中)은 김제, 포미지(布彌支)는 정읍 일대, 반고(半古)는 부안과 태인 일대로 비정되고 있어 4세기 중엽 경에는 전북지역이 백제에 복속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문헌자료에 보이는 마한 소국의 명칭과 현대 행정구역명의 음운 비교를 통한 소국의 위치를 비정한 연구는 모로비리국을 비롯한 일부 소국의 위치 정도만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을 뿐, 대부분 연구자에 따라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고학적 자료인 분묘와 생활유적을 활용하여 밀집도에 따라 소국의 위치를 비정해 보면 다음 지도(그림 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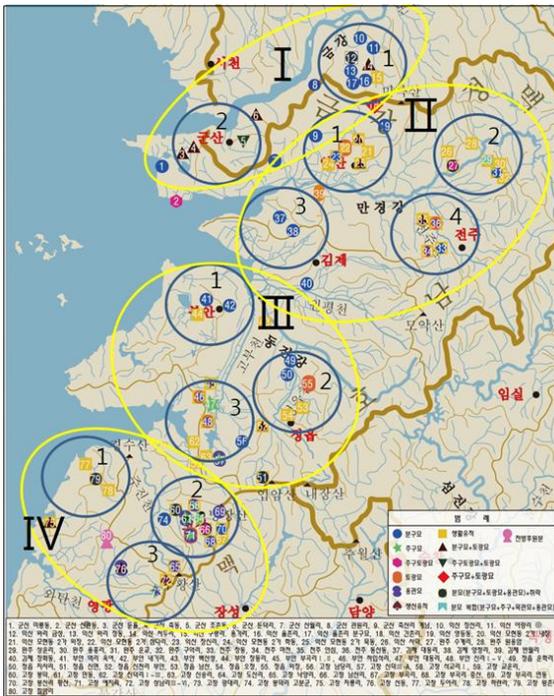


그림 4. 고고학 자료로 본 전북지역 마한소국

17) 양기석, 「전남지역 마한사회와 백제」 『전남지역 마한소국과 백제』, 학연문화사.

과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소국으로 비정할 수 있는 각 군집 된 유적군에서

(표 2) 고고학 자료로 본 전북지역 추정 마한소국

번호	권역	주요유적			문헌비정 소국	비고	
		분구묘	주거유적	기타			
1	금강 (I군)	1	익산 와리 금성 9기	와리 금성 20기 군산 관원리 31기	감해국		
2		2	군산 축동 10기 군산 미룡동 10기 군산 산월리 2기	군산 산월리 4기			
3	만경강 (II군)	1	익산 울촌리 5기 익산 장신리 4기 익산 서두리 4기 익산 모현동 목동 5기 익산 영등동 5기	익산 장신리 109기 익산 서두리 13기			
4		2	완주 수계리 17기 완주 상운리 30기	익산 사덕 105기 완주 수계리 68기 완주 상운리 14기 완주 용흥리 14기			
5		3	김제 장화동 7기 김제 양청리 1기				벽비리국
6		4	전주 장동 1기 전주 마전 5기 전주 안심 5기	전주 장동 69기 전주 마전 20기 전주 안심 3기 전주 암벌 19기			불사분사국
7	동진강 (III군)	1	정읍 운학리 3기 정읍 지사리 5기	정읍 남산 40기 정읍 오정 14기 부안 백산성 17기		백제 증방성 치소	
8		2	부안 부곡리 2기 부안 신리 6기	부안 부곡리 15기			
9		3	정읍 신면 8기 고창 신덕 2기	부안 장동리 33기 정읍 신면 33기 고창 교운리 44기 고창 신덕리 31기 고창 신송리 13기			
10	고창지역 (IV군)	1	고창 만동 13기 고창 봉덕리 5기 고창 증산 8기 고창 남산리 12기	고창 석교리 32기 고창 부곡리 26기 고창 봉덕 56기 고창 남산리 65기	모로비리국		
11		2	고창 성남리 14기 고창 광대리 13기	고창 성남리 9기			
12		3	고창 왕촌리 2기 고창 자룡리 7기	고창 왕촌리 21기 고창 두어리 31기			

는 위치에 따라 마한 관련 유적이 백제 영역화 이후에도 지속하여 축조되는 곳이 확인된다. 그만큼 마한문화의 전통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백제 영역화 이전에도 강력한 세력을 가진 정치·사회적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삼국지』에 보이는 만여가(萬餘家)로 구성되었다고 기록된 대국으로 비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대국은 주변 천여가(千餘家)로 구성된 소국 연맹체의 수장국으로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전라북도 일대에서 조사된 마한의 분묘와 생활유적을 중심으로 군집한 범위를 지역별로 표기된 다음의 지도(그림 4.)를 통해 마한 소국의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모두 12개의 소국이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지도에서 보듯이 3개의 군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I군은 금강유역으로 2개의 군집이 보이고, II군은 만경강유역을 중심으로 4개의 작은 군집들이 분포하며, III군은 동진강과 고창 홍덕을 경계로 하는 공간적 범위에 3개의 소군이, IV군은 고창 지역에 3개의 소군집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 각각 I·II·III·IV군의 문화적 양상은 마한의 성립이나 성장 과정과 백제와 상호관계 설정에 따라서 그 특징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한 정치·문화적 전통의 강약에 따라 때로는 백제 영역화 이후까지도 마한문화의 전통이 지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양상도 나타난다.

### 3. 마한에서 백제로

#### 1) 백제의 중방 및 남방성 설치

사비시대의 지방통치체제는 ‘5方 37郡 200城’으로 편제되게 되는데, 오방성에 대한 기록은 중국 측 사서인 『周書』, 『隨書』, 『北史』, 『翰苑』 등에 보인다. 이에 따르면 오방은 중방성, 동방성, 남방성, 서방성, 북방성으로 나뉘는데, 동방성은 은진으로, 북방성은 공주로, 중방성은 고부지역으로 비정하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다만, 서방성과 남방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는 듯하다.

김제 벽골제는 정읍 영원면 일대의 분구묘를 축조한 집단의 경제적인 배경이 되었고, 부안 백산성은 유통의 거점으로서 당시 이 일대의 풍요하고 강성했던 지방 세력의 단면을 그려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초고왕이 마한 세력의 병합과정에서 이곳에 들러 맹세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

었고, 사비기 이후 이곳은 백제 중방 오방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sup>18)</sup>.

고부지역은 오방 가운데 中方인 古沙城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자료들이 최근 고부 구읍성에 대한 4차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또한 은선리와 신정동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백제 중앙묘제인 횡혈식석실분을 통해서도 백제 중앙문화의 수용 양상을 살필 수가 있다. 은선리 고분군은 웅진 2식을 선행으로 웅진 2식과 사비 2식이 축조되었는데, 사비천도이후 이 지역이 오방성 가운데 중방 고사부리성으로서 위치를 가지는 시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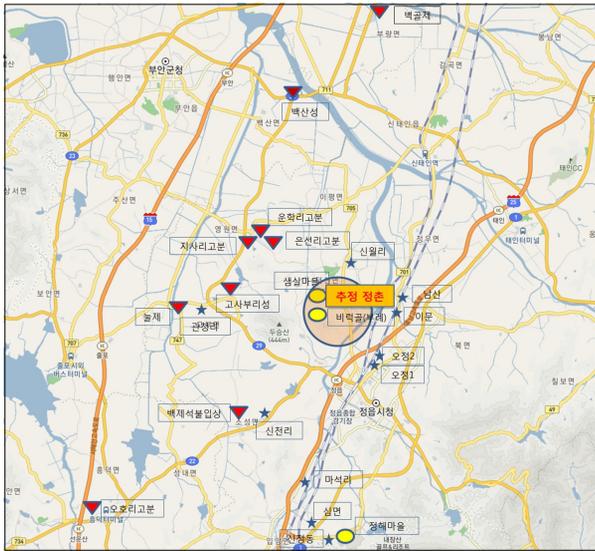


그림 5. 중방성 주변유적 분포도

백제 중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세력 집단에 의해 6세기 중엽 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정밀지표조사 결과 백제시대의 고분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13개소에서 124기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금강 이남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백제 고분군에 해당한다. 이처럼 대규모 백제 고분군이 축조된 것은 바로 이 지역이 백제 중앙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주요한 지방통치의 거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정읍 신정동<sup>19)</sup>과 고창 오호리 고분군에서 웅진 2식의 횡혈식석실분이 군집으로 발견되고, 특히 오호리에서 『○義將軍之印』 銘의 청동 인장이 출토됨에 따라 백제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유적은 고사성을 중심으로 외곽에 거점으로 배치되어 영산강유역의 마한계 세력을 견제와 통치를 위한 포석일 수 있으며, 동시에 중방성의 하부조직의 행정단위의 거점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18) 최완규, 2013, 「김제 벽골제와 백제 중방성」 『호남고고학보』 제44집, 호남고고학회.

19) 최완규 외, 2005, 『정읍 신정동 유적』,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또한 백제는 수도인 사비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이나 주요 교통로에 불상을 조성했는데, 고사부리성 인근 소성리의 2구의 불상입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sup>20)</sup> 이외에도 금사동산성, 은선리 토성 등 많은 산성도 백제 중방 고사성을 지지하고 있는 고고학적 자료들이다.

백제 오방성 가운데 유일하게 치소를 특정할 수 있는 중방 고사성의 구성요소에서 보면 치소에 해당하는 산성과 이를 지지하는 주변의 성곽, 사비시대의 황혈식석실분이 대규모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통치이념으로서 작용한 불교의 불상, 그리고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유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방성이 설치되는 곳은 지리적인 조건은 우선 교통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갖추고 있다.

남원 일대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일찍부터 백제 남방성으로 지목되고 있었다<sup>21)</sup>. 먼저 초촌리 고분군은 인접된 함양 상백리나 남원 운봉면, 아영면, 임실 금성리 등이 모두 가야계 수혈식석곽분임에 비해 210여기가 넘는 백제시대의 황혈식석실분이 대규모로 군집을 이루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파괴되어 8기 정도만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고분의 형식은 웅진 2식과 3식, 사비 3식에 해당하는데 6세기 초엽을 시작으로 7세기 중반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초촌리 고분군은 이백면 초촌리 자라말 부락 동쪽 표고 20m 구릉 서사면과 그 서방 무동산의 남사면 및 서쪽으로 향하는 지맥의 남·서사면에 211기가 분포되어 있는데, 대부분 파괴되었다<sup>22)</sup>. 그 가운데에서도 13기가 정리되어 보고되었는데 웅진 2식과 3식에 해당한다. 웅진 2식에 해당하는 것은 M60호분, M21호분, M43호분이며, 웅진 3식은 M13호분, M19호분, E10호분 그러나 전형적인 웅진유형에서 벗어나 있어 지역성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분의 축조 시기는 6세기 전반에서 중반에 해당하는데 M60호분에서 출토된 직구호의 연대와 통하고 있다. 특히 1963년 초촌리 고분군 인근 척문리의 파괴된 석실에서 은제관식 1점이 백제토기 3점과 관정 등이 수습된 바 있다<sup>23)</sup>. 은제관식은 6품 이상의 奈率 관리가 착장했던 위세품으로서 이 지역에 이미 중앙관리가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척문리 산성은 이백면 소재지에서 운봉고원에 이르는 여원치로 가는 도로와 요천강을 거슬러 장수 방면으로 사는 도로가 분기되는 삼각점에 위치한다. 그

20) 홍윤식, 1985, 『정읍 보화리석불입상주변 발굴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1) 전영래, 1985, 『백제남방경역의 변천』 『천관우선생 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정음문화사.

22) 전영래, 1981, 『남원, 초촌리고분군발굴조사보고서』 『전북유적조사보고』 제12집.

23) 전영래, 1981, 『남원 척문리산성 조사보고』 『전북유적조사보고』 제12집.

뿐만 아니라 전주 방면에서 남원에 이르는 구도로가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에 해당한다. 성은 규모는 둘레 567m이며, 석축으로 쌓은 성으로서 내부에서 삼족토기를 비롯한 다수의 백제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주생면 지당리 석불입상은 고려 불상이지만 삼국시대의 불상을 계승하고 있는 고식 양식으로 평가되고 있다<sup>24)</sup>. 이 불상은 삼국 가운데 백제 불상을 모방하고자 노력한 불상으로 그 배경에는 남원지역이 백제시대의 중요한 교통로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원 일대에는 백제 중방 고사성인 정읍 고부지역과 같은 방성의 지리적 요건과 고고학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곧 남원의 초촌리 고분군과 척문리 산성일대는 백제의 방성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 백제 남방성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이다.

중방 고사성의 기층문화는 마한문화로서 이를 기반으로 중방성을 설치하고 영산강유역의 마한계 잔여 세력을 견제와 통제를 위해 설치되었다면, 남방성은 운봉고원 일대의 가야 세력을 기반으로 백제 남방성이 설치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대가야 세력과 신라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백제의 익산천도

익산은 준왕의 남천지역으로서 마한의 정치문화가 성립된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익산지역이 다른 백제의 수도와 달리 마한의 정치문화 기반 위에서 성립된 백제 말기 왕도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익산지역에는 백제 말기 왕도였음을 묵묵히 증언해 주고 있는 왕궁, 미륵사, 제석사, 쌍릉, 성곽 등 고고유적들이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고, 천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헌기록 역시 찾을 수 있어 유적과 기록에서 익산은 백제 수도였음이 증명되고 있다. 특히 왕궁을 비롯한 고고유적은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에서 고대 도성 체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임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익산에 대한 연구는 도성 체계 속에서 각 유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유적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비유하면 숲을 보지 않고 숲을 이루고 있는 개별 수목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三國史記』에 익산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데서 찾을 수 있겠다. 그런데 필자는 『觀世音應驗

24) 진정환, 2007, 「남원 지당리 석불입상고찰」 『동악미술사학』 8집, 동악미술사학회.



석실의 노출 과정에서 왕릉 축조 당시의 묘도선과 시신을 납입할 때의 묘도선이 각각 노출되고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무왕이 생존하고 있었던 때에 壽陵으로서 축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왕릉은 무왕을 지지하고 있던 세력에 의해 주도적으로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고분의 축조 방식을 통해 주도 세력들이 가진 정치 배경을 살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토 인골을 분석한 결과와 미륵사지 서탑 사리봉안기의 내용<sup>25)</sup>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壽陵을 축조한 까닭은, 피장자인 무왕이 고령일 뿐 아니라 건강 상태도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봉분의 축조 방식으로는 인근 미륵사지 중앙의 목탑지와 제석사지의 목탑지와 금당지 등에서의 판축수법과 동일한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석실에 사용된 석재를 가공하는 수법에서는 미륵사지 서탑에 사용된 석재의 가공수법과 동일한 것이다. 미륵사지나 제석사지, 쌍릉 등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특징들은 백제왕도 익산의 독특한 문화양상으로 파악해도 좋을 듯하다.

한편 익산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성곽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통하여 익산도성의 외곽성임을 확인한 것도 커다란 수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왕궁을 둘러싸고 흐르는 옥룡천과 부상천은 해자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내성적 성격의 방어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두 하천과 복단에 위치한 익산토성과 저토성과 연결되는 내부 공간은 익산도성의 경내로 이해될 수 있다<sup>26)</sup>. 특히 왕궁 남동쪽에서 발견된 도로유구는 고대 도시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왕궁이나 익산토성에서 출토된 “수부(首府)”銘 인각와는 부여 관북리나 부소산성에서 출토되는 것과 같은 양상으로 익산과 부여는 백제시대에 동일한 성격의 고대 도시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무왕 31년 “重修泗泚之宮”이라는 궁궐수리기사의 분석에서 익산이 수도였음이 증명되었듯이 이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인 자료이다. 곧 무왕대 익산은 백제의 수도였을 당시에는 부여는 수부가 되고, 의자왕대에는 부여가 백제 수도가 되고 익산은 수부가 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부여에서 출토되는 “수부(首府)”銘 인각와가 익산이 백제 무왕 재위시기에 수도라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다<sup>27)</sup>.

25) 사리봉안기 내용 가운데 “大王陛下 年壽與山岳齊固 寶歷共天地同久”

26) 최완규, 2018, 『최근 고고학 성과로 본 백제왕도 익산』 『최근 고고학 성과로 본 백제왕도 익산』

27) 최완규, 2018 고도익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회의,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4. 전북지역 가야문화

전북지역의 동부 산간지대에 있는 가야의 실체는 1974년도 임실 금성리에서 조사된 수혈석석곽분에서 가야계 장경호와 고배류, 철제 농기구와 마구, 그리고 무기류가 발견되면서 인식하게 되었다<sup>28)</sup>. 그러나 전북지역의 가야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1982년도 남원 월산리 발굴조사<sup>29)</sup>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시 발굴 책임자였던 전영래 선생의 후일담에도 밝혔듯이 발굴전에는 백제고분으로 인식하고 발굴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전북지역은 마한 백제지역으로 알려져 왔다. 월산리 발굴 이후, 군산대학교 곽장근 교수에 의해 끈질긴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전북지역의 가야 실체에 서서히 접근해 가고 있다<sup>30)</sup>. 그 결과 백두대간의 동쪽 지역의 운봉고원뿐만 아니라 장수지역에도 많은 수의 가야 고분이 축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진안과 임실 등에서도 가야 고분이 발견되고 있다. 한편 분묘 유적 외에도 제철 관련 유적과 봉수 관련 유적도 발견되고 있지만<sup>31)</sup>, 아직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이들 유적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북지역의 가야문화의 본격적인 실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 전북가야의 기층문화

전북지역의 고대문화는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에 의해 서쪽에는 마한 백제문화가, 동쪽에는 가야계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가야계 문화는 금강, 섬진강, 남강수계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강과 섬진강수계에는 백제와 많은 교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특히 백두대간의 동쪽 남강수계의 운봉고원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가야계 정치체가 자리 잡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가야문화가 등장하기 전의 문화양상은 어땠을까?

마한고지에서 송국리 문화 다음 단계에 새로운 문화 요소를 담고 있는 묘제는 적석목관묘와 목관묘, 토광직장묘로 구분할 수 있다. 적석목관묘의 구조는

28) 전영래, 1974, 「임실 금성리 석곽묘군」 『전북유적조사보고』 제3집.

29) 전영래, 1983, 『남원 월산리고분군발굴조사보고』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0) 곽장근, 2004,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세력과 그 성장과정」 『호남고고학보』 제20집, 호남고고학회.

31) 곽장근, 2018, 『전북에서 만나는 가야이야기』,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도록, 국립전주박물관.

묘광을 굴착한 후 목관을 안치하고 목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둘레에 할석이나 괴석을 돌리고 목관위에도 석재를 올려 축조하고 있어 벽을 정연하게 축조한 석곽분과 다르게 석제조합이 균일하지 못하게 나타난다. 적석목관묘의 예는 공간적 범위가 경기도에서 전라남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게 분포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장수 남양리와 익산 다송리<sup>32)</sup>, 전주 여의동 1호 토광묘<sup>33)</sup>, 군산 선제리<sup>34)</sup>가 이에 해당한다.

적석목관묘는 장수 남양리에서 5기가 군집을 이루고 발견되었는데<sup>35)</sup>, 내부에서 세형동검과 세문경, 동모를 포함한 청동기와 철기가 공반되었다. 이러한 적석목관묘는 대부분 1기나 2기 정도가 분포하고 있는데 남양리의 경우 5기가 군집된 양상은 매우 이례적이라 하겠다. 적석목관묘의 분포 양상을 보면 토착 문화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곳에는 1~2기가 자리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밀집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곡리<sup>36)</sup>나 초포리<sup>37)</sup>의 경우는 지석묘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며, 부여지역은 송국리 문화 요소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장수 남양리지역의 경우는 아직 이전 단계의 뚜렷한 문화요소를 찾을 수 없는데, 이러한 점은 앞선 시기의 문화와 갈등 없이 새로운 문화가 정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묘가 군집을 이루면서 축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선진적인 철기문화의 확산도 주도해 나갔을 것이라 추측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30여기의 집자리가 발견된 남원 세전리유적에서 보면<sup>38)</sup> 무문토기 전통의 심발형토기부터 마한 전통의 시루나 귀때토기 그리고 경질토기까지 출토되고 있어 그 시기 폭은 좁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서부지역과 공통점이 발견된다.

장수 침곡리 유적의 조사결과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집자리와 분묘가 노출되었다<sup>39)</sup>. 원삼국시대 주거지는 6기가 발견되었는데, 평면형태, 입지, 주공의 배치상태, 벽구, 노지 등의 시설 면에서 서부지역의 것들과 공통점이 발견된다.

32) 전영래, 1975 『익산 함열면 다송리 청동유물출토묘』, 『전북유적조사보고』 제5집.

33) 전영래, 1990 『전주, 여의동선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전주대학교 박물관.

34) 전북문화재연구원, 2016, 『군산 선제리유적발굴조사약보고서』.

35) 윤덕향, 2000, 『남양리 발굴조사보고서』, 전라북도 장수군·전북대박물관.

36) 조유전, 1984 『전남 화순 청동유물일괄 출토유적』 『윤무병박사 회갑기념논총』, 통천문화사.

37) 이근무·서성훈, 1988 『함평초포리유적』, 국립광주박물관.

38) 전북대학교 박물관, 1990, 『세전리 발굴조사보고서』.

39) 군산대학교 박물관, 2006, 『장수 침곡리유적』.

마한 분구묘를 축조하면서 선분구 후매장이라는 분구 축조 방법과 분구의 저부에 주구를 굴착하는 전통이 가장 대표적인 분구묘의 속성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한 분구묘의 속성을 지속해서 구현되고 있는 요소를 전북 지역 가야 고분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전북가야의 최상위 계층의 분묘라 할 수 있는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호분의 주구 굴착에서 찾아지는데, 주구의 기능은 배수, 묘역의 구분, 또는 외부 세계와 분리하여 신성시하려는 관념이 작동하고 있는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40)</sup>. 청계리 1호 석곽의 남동측 모서리에 설치된 주구는 1-1호분의 축조와 더불어 설치된 것이라기보다 1-2호분을 연결하면서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5세기 후반 가야지역의 고층에는 주구가 설치된 예가 없고,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지형이 높은 곳에 반원형이나 초승달 형태의 주구가 설치된다. 따라서 청계리 1호분의 주구는 호남·호서의 저평한 구릉지에 조성된 고분의 주구설치 영향으로 파악하여<sup>41)</sup> 마한 분구묘의 영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진안 와정유적은 금강과 섬진강을 연결해 주는 남북 방향 교통로와, 서에서 백두대간을 넘는 동서방향의 교통로가 합해지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다. 이 유적은 반월형의 산정상부에 토성이 자리하고 있고, 그 내부에서 8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sup>42)</sup>. 이들 주거지는 구들 시설을하는 특징적이며, 출토된 유물은 장란형토기, 삼족토기, 발형토기, 시루 등 백제 중앙과 동일한 토기들이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유적들에서 보면 5세기 이전에는 가야보다는 전북의 서부지역과 동질적인 문화, 곧 마한과 백제와 깊은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가야문화가 전북 동부지역에 확산하였을까 이는 백제의 중앙 정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백제는 고구려와 전투에서 개로왕이 전사하고 공주로 천도하게 된다. 공주 천도 이후에도 백제 중앙 정치는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고 왕권과 귀족들과 반목 속에서 동성왕이 피살되는 등, 세력 약화가 이루어진다. 바로 이 시기를 이용하여 대가야 세력이 이 지역으로 진출하게 된다. 특히 전북 동부지역은 가야가 섬진강을 통해 남해로 진출하고, 금강을 통해 서해로 나아갈 수 있는 교통요충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야는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5세기 중엽 경에 해당한다.

40) 보고서에서는 주구 내에서 아무런 유물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성토와 관련된 토사 채취로 판단하고 있다.

41) 홍보식, 2020, 『남원 청계리고분군과 월산리고분군의 가치와 활용방안』, 『남원 청계리 청계 고분군과 월산리 고분군 조사성과와 의의』,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42) 윤덕향 외, 2001, 『와정유적』, 진안용담댐수몰지지역내 발굴조사보고서.

## 2) 전북가야의 중심문화권

전북지역에서 가야 고분군이 발견되는 지역은 남원의 운봉읍과 아영면, 장수군의 장수읍과 장계면, 그리고 진안고원과 무주 일대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고분군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며 최고의 위세품이 부장된 수장급의 고분이 집중된 지역을 전북 가야의 중심 문화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볼 때, 전북 가야의 가장 최상위 계층의 피장자로 추정할 수 있는 지역은 아영분지와 장계분지를 꼽을 수 있고, 그중에 아영분지의 월산리,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최상위에 들 수 있다. 장계분지의 피장자는 고분의 규모와 구조, 출토유물에서 이들보다 한 단계 낮은 지배층의 분묘로 상정할 수 있다.

이들 두 지역에서 보면 지리적으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분지형 지형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곧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지는 자연적으로 방어시설이 되기 때문에 천연적인 요새가 되는 것이며, 또한 분지의 주변의 산악에서 발원하는 수원은 농업 생산력의 근본이 될 뿐 아니라, 교통로서 매우 유리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 또한 유사시에 분지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위험 요소로부터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아영분지 입구에 해당하는 지역은 운봉읍이 또 하나의 분지 지형을 갖추고 있어 유사시에 방어를 필요로 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또한 장계 분지에서도 같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장수 분지의 공간이 운봉 분지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영분지에 비해 운봉분지에는 고분의 규모나 출토유물에서 한 단계 낮은 피장자 집단의 고분군이 축조되고 있고, 이러한 예는 장수분지나 장계분에서도 같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조건에 따른 고분의 양상에 따라 전북 가야의 공간적 특징을 중심 문화권과 주변 문화권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 (1) 아영분지

아영분지에 축조된 고분은 40여기가 알려져 있으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은 월산리, 유곡리와 두락리 유곡리와 두락리, 건지리, 봉대고분군 등 5곳에 이른다. 월산리고분군과 청계리고분군은 460여m 떨어져 위치하는데, 전자는 구룡 말단부의 미고지에 위치하며 후자는 시리봉의 지맥에서 남동쪽으로

뺨은 구릉 능선에 자리 잡고 있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아영면 두락리와 인월면 유곡리의 경계에 위치하는데, 청계리 월산리고분군의 동쪽에 풍천을 사이에 두고 2km 정도 떨어져 자리 잡고 있다. 풍천을 경계로 서남쪽에 봉대고분이 동남쪽에는 건지리고분군이 자리 잡고 있어 마치 아영분지의 양옆으로 고분군들이 입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외에도 월산리와 건지리를 중심으로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어 아영분지의 평지에서 가까운 산지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청계리고분군은 구릉 능선을 따라 약 10여기의 고층 고분이 열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청계리 1호분<sup>43)</sup>이 2020년에는 2호분<sup>44)</sup>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1호분의 봉분은 평면이 장타원형이며,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조성하였고 석곽 안치 후 1m 정도의 성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규모는 성토부를 기준으로 최대 길이 30m, 너비 20m 내외가 된다. 매장시설로는 3기의 석곽이 확인되었고, 1, 2호 석곽은 봉분의 장축방향에 따라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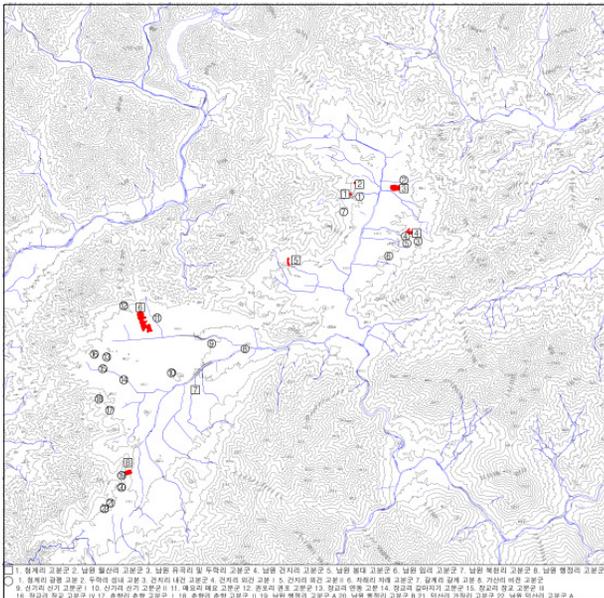


그림 7. 남원지역 가야고분

되었고, 3호 석곽은 2호 석곽의 북쪽 단벽에 연하여 직교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석곽의 배치는 T자형을 이룬다. 발굴조사 결과 2,3호는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3호 석곽은 시간적 차이를 두고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봉토의 유실을 막기 위해 2,3호 석곽 안치당시에 시설된 호석열을 파괴하고 1호 석곽이 축조된 것에

- 43) 오동선, 2020, 『남원 아영분지 고층고분 조영세력의 변천과 성격』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과 월산리 고분군 조사성과와 의의』,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44) (재)해원문화재연구원, 2020, 『남원 청계리 고분군 발굴조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서도 알 수 있다. 석곽의 규모는 각각 2호는 5.4m×1.6m×1.3m, 3호는 5.8m×0.7m×1.1m, 1호는 5.7m×1.15m×1.65m 이다. 이 가운데 2호 석곽이 중심석곽으로서 봉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금동제의 화살통 장식편과 모자(母子)대도편, 수레바퀴 장식토기편이 발견됨에 따라 1호분의 주피장자로 판단할 수 있다.

2호분은 1호분보다 좀 높은 북서쪽으로 인접하고 있는데, 봉분의 축조는 1호분과 같이 자연 지형을 먼저 가공한 다음 석곽을 안치하고 성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2기의 석곽이 발견되었는데, 1호는 4.87m×0.86m×1.2m, 2호는 2.6m×0.85m×? 로서 1호분의 석곽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다. 석곽의 장축 방향은 경사면과 일치되게 배치되고 있다. 출토유물은 표토에서 세환이식 1점과 고배와 대각편이 발견되었다. 발굴자료집을 살펴보면 석곽의 배치에 따라 청계리 1호분은 ‘I’ 자형, ‘卜’자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2호분과 유사자료를 월산리 M2호분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사진이나 도면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1호 석곽과 직교하는 묘광선이 확인되고 있고, 특히 이 묘광선에 대응되는 석축이 확인되기 때문에 후대에 석곽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계리 1,2호분은 능선 위에있는데,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봉분을 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타원형의 분형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한적인 공간을 가지는 봉분 내에 가야 고분의 특징인 세장방향의 석곽을 안치하면서 분형의 장축방향과 일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을 것이다. 곧 자북에 의한 장축방향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자연 지형에 따른 장축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호분의 1호 석곽과 2호분의 2호 석곽은 초축 당시부터 안치된 것이 아니라 시차 두고 축조되고 있어 혈연관계에 있는 다른 피장자를 추가로 하나의 봉분 내에 안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청계리 고분군의 출토품에는 현지품,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등 다양한 계통의 유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영분지의 세력들은 가야의 다양한 세력과 교류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기도 하다.

월산리고분군은 아영면 청계리와 월산리 일원에 있는데 모두 9기의 중대형 고층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982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의해 M1~M3호분이<sup>45)</sup>, 2010년에 전북문화재연구원에 의해 M4~M6호분을 비롯하여 모두 6기의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sup>46)</sup>.

두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토기류와 환두대도, 갑옷을 비롯하여 마구류, 무구류, 꺾쇠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월산리고분군의 성격을 추정할 수

45)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3, 『남원 월산리고분군발굴조사보고서』.

46) 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남원 월산리고분군 - M4,M5,M6호분-』.

있다. 1982년 M1~M3호분과 M4호분에 대한 수습 조사를 통하여 중대형고총분이 축조되기에 앞서 수혈식석곽이 축조되었으며 내부에서는 아영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재지계 토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대가야양식과 소가야양식의 토기가 함께 출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도 발굴조사에서 M5호분은 여러 차례 도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M5호분 출토유물은 청자계수호와 철제자루술을 비롯하여 금제귀걸이·유리제목걸이와 같은 장신구류, 투구·목가리개·찰갑 등의 갑옷과 기꽃이·발걸이·재갈·삼주령 등의 마구류, 쇠손칼, 쇠화살촉, 쇠도끼 등의 무기류, 꺾쇠, 원통모양그릇받침·바리모양그릇받침·소형원통모양그릇받침·뚜껑달린긴목항아리·짧은목항아리 등 다양한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이처럼 M5호분에서 출토된 청자계수호와 철제자루술의 경우 중국과 직접적인 교류를 통하여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가야지역에서 이러한 유물이 출토된 예가 없고, 주로 백제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어 월산리 M5호분의 피장자의 성격을 추론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M5호분의 피장자가 백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는 한성백제부터 비롯된 백제와 전북 가야의 상호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전북과 경남의 도계를 형성하는 연비산에서 아영들 중심부까지 동서 방향으로 길게 뻗은 능선의 정상에 위치한다. 모두 40여기의 고총은 구릉 정상을 비롯하여 그 능선과 직교되게 북쪽으로 돌출된 두 개의 지류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sup>47)</sup>. 1989년 조사에서 수혈식석곽묘 4기와 횡혈식석실묘 1기가 조사되어 다수의 가야계 토기와 철기류와 가야계 유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꽃이가 처음으로 출토되어 주목된 바 있다.

32호분은 동쪽 구릉 주 능선 위의 하단부에 위치하고, 능선 하단부와 연결된 부분을 묘역으로 선정하여 의도적으로 봉분을 높게 보이는 효과를 보인다. 축조 순서를 보면 먼저 기반암층을 평탄하게 한 후 석곽을 설치하고 이를 보호하고 봉분을 성토하기 위한 토제를 쌓았다. 석곽의 개석을 덮은 후 봉분을 반으로 구획하여 성토했으며, 이 과정에서 봉분의 서쪽에 주구를 굴착하고 있는데 이는 봉분의 성토를 위한 채토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를 흙으로 덮어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봉토 상면에서 135cm 아래에서 주·부석곽이 나란하게 배치되어 노출되었다. 주곽의 규모는 7.5m×1.3m×1.8m,

47) 윤덕향 외, 1989, 『두락리 발굴조사보고서』, 전북대학교박물관.

부곽은 5.1m×1.2m×0.8m이며, 주곽에 부족한 부장공간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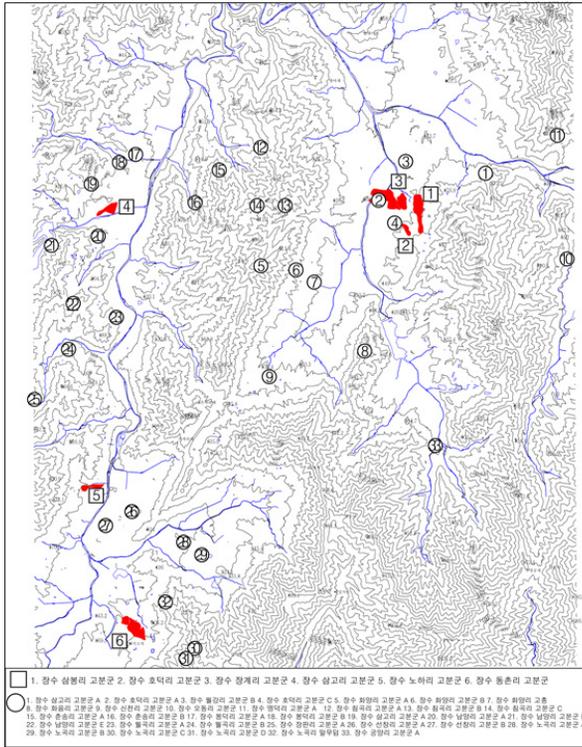


그림 8. 장수지역 가야고분

곽을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출토유물은 주곽의 중앙부에서 파장자의 착장유물인 청동거울, 금동신발편 등이 발견되었고, 동쪽 부장 칸에서는 유개장경화 철촉과 같은 무기류, 서쪽 부장 칸에서는 등자와 운주와 같은 마류구와 유개단경호가 부장되어 있었다. 부장석곽에서는 기대 13세트와 단경호 2점이 발견되었다. 출토유물 가운데 청동거울과 금동신발은 공주 무령왕릉 출토품과 비견되는데, 이를 통해 피장자가 상

당한 신분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곧 아영분지의 월산리 M5호분 출토 계수호와 초두, 그리고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호분 출토 청동거울과 금동신발을 통해 이 지역 가야계 세력과 백제와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인다. 특히 1989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진 백제 웅진기의 횡혈식석실분의 존재는 백제의 중앙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축조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장계분지

장수지역에서 고고학적인 고분 유적에 대한 조사는 1993년 군산대학교 박물관에 의한 지표조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sup>48)</sup>, 이는 1977년 문화

48) 광장근, 1995, 「전북 장수군의 유적현황과 보존실태」, 『호남고고학회』 2집, 호남고고학회.

재관리국에서 발간한 『문화유적총람』의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당시의 지표조사에서 장계면의 송천리고분군과 삼봉리고분군, 그리고 천천면의 삼고리고분군에 대한 현상과 지표에서 채집된 토기편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다. 이후 최근 2013년 장수군 일대의 가야 고총군 정밀지표조사를 통하여 장계면 삼봉리 41기, 월강리 23기, 계남면 호덕리 41기, 황양리 1기, 장수읍 동촌리 80기, 대성리 2기 등 200여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sup>49)</sup>.

장수지역의 고총 고분군 가운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결과, 장계분지에 위치한 삼봉리와 장계리고분군 등이 최고 상위계층 피장자의 고분으로 알려졌다. 후술하겠지만, 삼봉리 고분의 주석곽 내부에서 안치목곽이 시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마구 등이 발견되었다. 장계리 고분에서는 철기 제작 관련 단야구 일습이 출토되고 있어 장수지역의 고분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장수지역에서는 장계분지를 중심 문화권 지역으로 상정하여 그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장수 삼봉리 고분군은 백화산에서 뺀어 내린 산줄기의 중간지점에 봉토 직경 20m 내외가 되는 2기의 고분과 그 아래쪽으로 직경 10m 정도의 고분 20여기가 발굴조사 당시에는 자리 잡고 있었다<sup>50)</sup>. 그 가운데 발굴이 이루어진 1호분은 봉토 중앙부에 주곽을 두고 주변에 2기의 순장곽을 그 사이에는 합구식 옹관이 안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곽의 규모는 4.62m×96m×1.42m이며 석곽의 남서쪽에서 우개장경호와 내부의 교란된 흙 속에서 꺾쇠 16점, 철모 1점, 교구 6점, 철촉 4점, 철검, 철도 등 철기류가 출토되었고, 바닥면에서 환두대도가 부장되었던 흔적이 확인되었다.

한편 순장곽으로 보고된 1-2호 석곽의 규모는 2.02m×0.62m×0.78m이며, 내부에서 적갈색심발형토기와 철도자가 출토되었다. 1-3호 석곽은 규모가 1.86m×0.48m×0.68m이며, 광구장경호 1점이 발견되었다. 합구식 옹관은 장란형토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합구 상태의 길이는 80cm 정도가 된다.

2호분<sup>51)</sup>은 주석곽과 순장곽으로 추정되는 석곽 3기 토광 1기가 조사되었으며, 주변에서 4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봉분은 평면형태가 타원형이며, 평탄면을 조성한 후 이를 판 다음 주석곽을 축조하였다. 주석곽은 세장한 평면으로 천석과 활석을 섞어 쌓았으며, 바닥면에서 일정 간격의 목주흔이 노출되

49)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장수 삼봉리 고분군 - 1·24·25호분』.

50) 군산대학교박물관, 2005, 『삼봉리 고분군·동촌리 고분군』, 장수군·문화재청.

51) 柳哲 外, 2015, 『長水 三峰里 古墳群』, (財)全州文化遺産研究院.

었다. 주곽의 규모는 4.9m×1.0m×1.63m이다. 출토유물로는 단경호, 장경호, 발 등의 토기류, 그리고 재갈, 등자, 안장가리개, 교구, 운주 등 마구류와 대도, 철촉, 철모, 철부 등 무기류와 껍쇠가 발견되었다.

3호분<sup>52)</sup>의 봉분 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동서 26.0m, 남북 17.0m, 잔존 높이가 5.0m이다. 봉분은 남북으로 뺀 지류의 정상부와 경사가 급한 동쪽 사면은 깎아내고 지대가 낮은 서쪽 사면은 성토하여 묘역을 조성하였다. 정상부에는 높이 60cm 정도로 성토한 후 묘광을 파고 주석곽을 안치하고 있다. 주석곽의 평면은 세장방향으로 바닥면에서는 장벽에 붙여 각각 4개씩 좌우 대칭으로 모두 8개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주석곽의 규모는 5.25m×1.2m×1.74m이며 1호 소형석곽은 3.65m×0.75m×0.7m이며, 부장유물은 주석곽과 주변석곽에서 장경호, 단경호, 기대, 배 등의 토기류와 교구, 껍쇠, 도자, 철촉, 금제이식 등 금속제 유물이 출토되었다.

삼봉리고분군 보고서에는 껍쇠 발견의 의미를 목관을 결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특히 석곽내부에서 노출된 장벽 양옆으로 4개씩 정연하게 보이는 목주흔은 석곽 축조 시에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목주흔과 껍쇠의 존재로 미루어 3호분에는 목곽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호분에서도 석곽의 중앙부 곧 피장자가 안치되었을 공간의 양단에 목주흔이 보이고 있고, 껍쇠와 관정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부식이 덜 된 상태의 관정의 길이가 15~16cm에 이르러 최소한 7~8cm 두께의 목재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관정이나 껍쇠에 남아있는 목질 흔의 길이가 5cm 이상 되는 것도 있어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7~8cm 두께의 목재를 사용했다면 시신을 운반하여 매장한 관이라기보다 오히려 안치용의 목곽이 시설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석곽 내부에 정연하게 남아 있는 8개의 목주흔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삼봉리 고분에서 주 매장주체부인 대형 석곽은 중앙에 자리하고 있지만, 소형석곽이나 옹관이 봉분의 남사면에 배치된 양상에서 이는 부곽이라기 보다 추가장에 따른 매장적 성격의 매장시설로 생각된다. 주석곽 주변의 소형석곽들이 순장곽이라는 의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주석곽과 소형석곽의 축조 동시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굴과정에서 이러한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토층조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최근 조사가 이루어진

52)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 동촌리·삼봉리 고분군』.

동촌리 2호분의 서쪽에 배치된 1-2호 석곽의 토층을 보면<sup>53)</sup> 당초 봉분의 피복으로 성토된 토층을 파고 1-2호 석곽이 안치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삼봉리 3호분의 2기의 소형석곽의 배치를 보면 봉분의 기저부 밖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sup>54)</sup>, 역시 순장이라기보다는 혈연적 친연성에 의해서 배치된 매장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시차를 두고 석곽이 조성된 것으로 이러한 양상은 가야 고분에서 보이는 순장에서 보이는 부곽이라기 보다는 혈연중심의 가족관계에서 주 매장부의 피장자 자식 등이 성인이 되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 배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삼봉리 19호(2020년)의 경우 주석곽은 안치되지 않은 채 분정의 남쪽에 치우쳐 4기의 소형석곽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만일 삼봉리 고분군 가운데 순장곽이 일반화되었다면, 주 피장자 안치되기 이전에 순장부터 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는 순장이라는 장제의 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순장이 일반화된 장법이라면, 어느 정도 정형화된 주석곽과 순장곽의 배치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삼봉리를 비롯한 장수 지역의 하나의 봉토 내에 안치된 주석곽과 종석곽의 의미는 혈연관계에 의한 장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순장곽의 의미는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예는 동촌리나 삼고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장계리에서는 소형 석곽이 보이지 않는 예도 보인다. 남원의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호분의 경우는 부장곽으로 보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계리 고분군은 백화산에서 북서쪽으로 뺀 여러 갈래의 지류 중 장계면 소재지까지 뺀 지류의 끝자락에 자리한다. 이 지류의 정상부와 돌출부에 고분이 자리하고 있으며, 직경 20m 내외의 대형분과 10~15m 내외의 중형분이 정상부를 따라 일정 간격을 두고 위치한다. 64호분은 구릉 정상부인 북쪽에서 남쪽으로 높게 흙을 성토하여 봉분처럼 조성한 것으로 토층에서 확인되었으며, 매장주체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석재가 노출되어 도굴이 이루어진 매장주체부로 추정하였던 적석(돌무지)은 주변에 구획한 Tr에서 확인되는 토층으로 보아 성토층의 경사면에 일시적으로 쏟아부은 듯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성토층에서 뚜껑 1점, 배 1점 등 토기편이 약간 확인되었다.

8호분은 매장주체부인 석곽은 흑회색점질층을 굴광하고 일정한 높이까지 벽석을 쌓아 올린 다음 벽석축조와 봉분 성토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수혈식석곽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이다. 석곽

53)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 동촌리·삼봉리 고분군』, 도면 4. 참조.

54) 위 보고서 도면 9. 참조.

의 규모는 3.60m×0.7m×0.81m~0.1m이다. 벽석의 축조방법은 크고 작은 (장방향)할석과 천석을 이용하여 가로놓혀쌓기 하였다. 부장유물은 북쪽 단벽에 치우쳐 배와 집게·망치 등의 단야구, 철검, 방추차가 출토되었고 중앙에서 남쪽 단벽으로 약간 치우친 바다면에서 환두도편, 이식편, 옥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도굴구덩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개장경호, 고배편, 단경호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주석곽 남쪽 단벽과 인접하여 소형석곽 1기가 확인되었다. 장축방향은 8호분 주석곽과 직교하는 동-서 방향에 가깝다. 석곽의 규모는 1.9m×0.43m×0.36m이며, 중앙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바다면에서 유개장경호, 광구호, 배가 출토되었다. 이 유적에서 주목되는 것은 단야구의 발견된 점인데, 장수지역에서 가야 제철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장계분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호덕리 유적<sup>55)</sup>은 삼봉리 고분군에서 서쪽으로 인접해 있는데 두 개의 구릉에 각각 고분이 조성되어 있다. A 지구에서만 가야계 수혈식석곽묘 11기가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1호와 9호는 장축이 4m 이상이며, 2호와 8호는 2m 이하이며, 7기는 2~3m 정도이다. 석곽의 군집양상이나 규모와 내부시설과 출토유물에서도 장계분지의 삼봉리나 장계리 고분군보다는 하위계층의 분묘로 판단된다.

### 3) 전북가야의 주변문화권

앞서 전북 동부 산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고분군을 통해 가야세력의 중심지를 아영분지와 장계분지로 나누어 보고 그 지리적 특징과 그 내용을 파악해 보았다. 이와 같은 중심권역의 세력을 뒷받침하는 집단에 대한 분묘들이 운봉분지와 장수분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두 지역 간의 상호 비교를 통해 전북가야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 (1) 운봉분지

건지리 고분군은 도굴에 의해 그 유구가 지표상에 드러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sup>56)</sup>. 이후 조사에서 가 지구에서 17기, 나 지구에서 5기, 다 지구에서 17기등 모두 39기의 수혈식석곽분이 조사되었다. 나 지구에서

55) 전북대학교 박물관·군산대학교 박물관, 2000,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무주-장계구간) 건설구간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56) 윤덕향, 1987, 「남원 건지리유적조사개보」 『삼불김원용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일지사.

는 봉토 내에 하나의 석곽이 안치되어 있었으나 가 지구와 다 지구에서는 주석곽과 더불어 여러 석곽이 하나의 봉토 내에 배치되어 있다<sup>57)</sup>. 그러나 훼손이 심한 탓인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봉토의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하기 힘들다. 석곽들은 대부분 풍화 암반층을 파고 안치되었고, 바닥에는 별다른 시설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도굴이 심한 상태여서 출토유물의 조합상은 파악하기 힘든 상태였지만, 고령양식의 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sup>58)</sup>.

행정리 고분군에서는 토광묘 1기, 수혈식석곽분 12기와 고려시대 횡구식석곽분 1기가 조사되었다<sup>59)</sup>. 석곽은 풍화암반을 파고 안치하고 있으며, 그 길이가 3.0m 이상이 4기, 3.0m 이하가 5기, 1.0m 이하의 소형곽이 3기로 다양한 규모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를 통해 1호분 같은 경우는 단곽분이나 12호의 경우는 7호와 8호를 배장석곽으로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출토유물은 무개장경호가 주를 이루며 전형적인 고령양식의 토기가 출토되지 않은 점이 주목되고 있다<sup>60)</sup>. 연대는 인근 건지리에서 출토된 토기와 통하고 있어 그 연대를 6세기 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리 고분은 운봉읍 임리 마을의 서북쪽 산줄기를 따라 조성된 30여기의 고분 가운데 하나로<sup>61)</sup>서 조사전에 봉토는 이미 유실된 상태였고, 개석 2매가 지표상에 노출된 상태였다. 봉토는 층위나 지형을 고려할 때 원형 또는 타원형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직경 15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봉토 중앙에 주석곽을 배치하고 동북쪽에 소형의 석곽 2기를 배치하고 있다. 석곽내 유물이 단벽에 치우쳐 부장된 양상을 보여 시신이 매장 가능성을 두고 순장곽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순장곽이라는 전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는데, 보고서에도 지적하고 있듯이 주석곽은 횡구식으로 백제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곧 백제계 횡구식석곽분에서 과연 순장곽이 존재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주석곽에서 유개장경호 1점과 1-1호 석곽에서 광구장경호, 호형토기가 각각 1점, 1-2호 석곽에서 광구장경호가 1점 발견되었다. 이 밖에 봉토내에 부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구호, 대호편, 뚜껑 등이 확인되었다. 부장유물에서 주석곽의 횡구식과 더불어 백제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천리 고분군은 바래봉의 가지구릉에서 북서쪽으로 흘러내린 능선을 따라

57) 문화재연구소, 1991, 『남원 건지리 고분군 발굴조사 보고서』.

58) 광장군, 1999, 『호남 동부지역 석곽묘 연구』, 서경문화사.

59) 전북대학교 박물관, 1994, 『행정리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60) 광장군, 1999, 위 책.

61) 군산대학교 박물관, 2013, 『남원 입암리·임리 고분』.

9기의 고분이 열 지어 분포하고 있는데, 3호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가야계 황구식석곽묘 1기, 신라후기 황구식석곽묘 1기, 신석기시대 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다. 신라후기 황구식석곽분에서만 6세기 후반대의 단각고배가 출토되어 신라의 이 지역 확산과 연결 짓고 있다.

한편 남원 서부권에 해당하는 입암리에서는 7기의 말무덤 가운데 1기의 마한 분구묘가 조사되어 이 지역의 기층문화로서 마한 정치체를 상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강면 사석리·방산리에 7기, 운봉읍 장교리에 7기 가운데 3기만이 보존되어 있어 남원지역의 기층문화로서 마한문화를 가늠케하고 있다.

## (2) 장수분지

장수 동촌리 고분은 가야 고분의 일반적 입지인 사방이 훤히 보이는 곳에 5개 지구로 나뉘어 모두 40여기가 분포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지구에서 8기의 고분을 조사했는데, 3호, 6호, 7호에서는 각각 1기의 부곽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8호에서는 4기의 부곽이 딸려 있음이 확인되었다<sup>62)</sup>. 출토유물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3-3호에서 출토된 무투창고배와 9호에서 출토된 직구호는 백제관련 토기로서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걸쳐 백제와 교섭이 있었음을 추론케 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

동촌리 1호분<sup>63)</sup>에서 보면 구지표와 풍화암반층을 봉분형태로 깎아 조성한 후 석곽은 반지하에 위치하도록 하고 그 위에 성토하여 봉분을 조성하고 있다. 일단 풍화암반층을 봉분형태로 깎아서 조성하기 때문에 봉토 조성에 드는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멀리에서도 고대한 봉토를 가지는 분묘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최대의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예는 장계리 고분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 한편 1-1호는 주매장부의 묘광을 파고 들어가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점이 바로 주·부곽의 관계에서 순장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는 주매장부의 피장자와 혈연적 관계에 있었던 미성년자가 매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토유물은 모두 18점으로 토기류 12점, 철기류 2점, 자연유물(말뼈) 4점이다. 토기류는 단경호·발형기대·발형토기·개·배·고배 등의 기종이 확인된다. 단경호에서는 백제적 요소가 보이며, 발형기대는 함양 백천리·고령 지산동·옥전

62) 군산대학교박물관, 2005, 『삼봉리 고분군·동촌리 고분군』, 장수군·문화재청.

63)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장수 동촌리 고분군 - 1호분-』.

의 출토품과 유사하여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 발형토기와 개, 배는 재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종래 장수지역에서 조사된 고분 출토품과 흡사하다. 또한, 철제 편자는 말뼈와 공반되어 출토되었는데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편자와 말뼈의 분석을 통해 실제 사용된 편자로 말의 품종과 매납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듯 출토유물에 있어 재지계와 백제·대가야계의 양식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고층의 봉토와 주석곽의 축조기법에서는 장수지역이 갖는 지역적 특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동촌리 1호분의 축조연대는 석곽구조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볼 때 6세기 전반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동촌리 2호분<sup>64)</sup>은 봉분 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남북 14m, 동서 12m, 잔존 높이 1.8m이다. 주석곽은 도굴된 상태였으며 주변에 3기의 석곽이 배치되었다. 주석곽은 세장방향으로 구지표와 생토면을 정지한 후 굴광하여 안치되었다. 주석곽에서 장경호, 파수부완, 병, 개배, 팽, 기대 등의 토기류와 대도, 철도자, 금제이식이 출토되었다. 2호분의 조사를 통하여 동촌리 고분군의 봉분 조성관련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장수 삼고리 고분은 능선의 정상부에는 대형봉토분이 자리 잡고 그 사면에는 소형석곽분들이 분포하고 있어 가야지역의 수장층 고분의 입지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 들 고분 중에서 19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는데, 출토품은 유개고배, 유개장경호, 광구장경호, 발형기대, 개배 등 대가야 양식 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sup>65)</sup>. 그러나 7호분에서 출토된 삼족토기와 8호에서 출토된 병형토기는 백제와 교류 관계를 파악하는 매우 귀중한 단서가 되고 있는데, 그 시기는 6세기 초엽으로 판단된다. 이는 백제가 공주 천도 이후 금강을 따라 가야 지역으로의 진출을 알 수 있는 증거로 보인다.

진안 황산리 고분은 세장형 수혈식석곽분으로 금강변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뻗은 능선의 정상과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데, 가 지구에서 12기와 나 지구에서 5기 등 모두 17기가 조사되었다<sup>66)</sup>. 출토유물은 대가야계의 저평통기대, 대부장경호, 광구장경호, 고배 등과 더불어 6호, 7호, 11호에서는 삼족토기와 같은 백제토기가 공반되고 있어 두 정치체간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장수 노하리 고분군에서는 6기의 석곽묘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sup>67)</sup>, 봉

64)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 동촌리·삼봉리 고분군』.

65) 군산대학교박물관, 1998, 『장수 삼고리고분군』.

66) 군산대학교 박물관, 2001,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Ⅳ』.

토는 유실되었고 3호 석곽의 경우 타원형의 주구가 확인되었다. 석곽은 세장형으로 개석은 남아있지 않고, 벽석은 3~4단 내외로 남아있다. 1호와 2호의 경우 주변에 소형석곽이 확인되며, 3호 석곽의 주구에서는 다량의 토기류가 폐기된 상태로 출토되어 마한 분구묘 전통의 요소로 판단된다. 출토품은 기대, 고배, 파배, 장경호, 단경호, 대부호, 발 등 토기류와 철도, 철도자, 철검, 철촉, 뿌리기, 금제이식 등의 금속류가 발견되었다. 출토토기에서는 재지계, 백제계, 소가야계, 대가야계 등이 혼재된 양상을 보여 주고 있어 이 고분의 피장자 집단은 주변 세력과 활발한 교류의 흔적을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고분에서 발견된 대부호는 군산 산월리의 석실분 출토와 매우 유사하며, 배신이 낮은 고배는 논산 신흥리 2호분 출토품과 유사하여 두 지역과 장수 노하리 축조집단 간의 교류를 엿볼 수 있다.

#### 4) 전북가야의 백제관문 연산지방

한편 금강이나 섬진강수계의 묘제 특징은 가야의 수혈식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출토유물에서 백제계의 토기들이 포함된 양상을 보인다. 묘제의 수용이 강제적이라기 보다 자발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의미는 고분을 축조한 주인공들이 가야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다. 그리고 백제토기가 부장된 점은 백제와의 교류나영역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백제문화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듯 가야문화 권역의 확산 배경에는 강력한 정치체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을 것이다. 바로 운봉고원의 월산리, 유곡리와 월산리,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두락리 고분군 축조했던 세력과 장수지역의 삼봉리, 삼고리, 동촌리의 군집 고분의 주인공들이 강력한 정치체를 이루고 섬진강을 따라 남해로 금강을 따라 서해로의 진출을 도모했을 것이다.

가야에서도 이 지역이 서해나 남해로 진출하는 중요한 요충지였듯이 백제에서는 가야지역으로 진출하는 요충지인 셈이다. 따라서 백제도 이 지역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010년도 월산리에서 출토된 중국제 계수호와 철제초두는 바로 백제의 중앙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가 된다<sup>67)</sup>. 백제는 중국 견사시에 중국 물품과 작위를 받아 지방에 하사하여 지방통치의 한 방편

67)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8, 『장수 노하리 고분군』.

68) 박순발, 2012, 『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고분군』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무사』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도록.

으로 삼았음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백제 고지의 각 지역에서 발견되는 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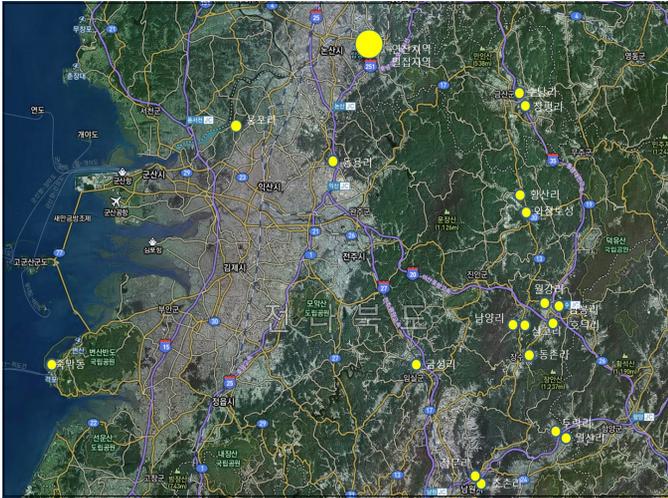


그림 9. 연산지방과 가야고분 분포도

관과 금동신발로 대표되는 위세품과 중국제청자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인 증거이다. 무령왕대에 백제는 다시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데 남원 초촌리 고분군과 척문리 고분군이 용진유형

의 백제 중앙 고분으로서 그 증거가 된다. 곧 백두대간의 서쪽 안전지대인 이곳에 가야지역으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백제고지에 해당하는 충남 연산지역에서 수혈식석곽분이 군집을 이루고 발견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중앙묘제인 황혈식석실분 채용 이전에 지역의 재지세력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수혈식석곽분 내부에서 백제토기와 더불어 가야계통의 토기가 출토되어 일찍이 가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지만<sup>69)</sup>, 크게 주목되지 못했다. 최근 들어 전북 지역의 장수와 진안지역에서 가야계 수혈식석곽분에서 가야계토기와 더불어 백제토기가 공반되고 있어 이제는 연산지방의 수혈식석곽분의 피장자 집단을 가야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집단으로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표정리고분군은 대규모 수혈식석곽분의 군집지역으로, 하표정유적에서 보면 표고 45m의 산으로 함지봉 줄기에서 평야지대에 분지형으로 돌출된 있는 야산의 구릉에 입지하고 있다<sup>70)</sup>. 모촌리 고분군이 위치한 곳의 전체 지형은 동향의 사면을 이루고 있지만, 동북에서 서남으로 흐르는 구릉이 낮아지면서 동남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지형상 남향의 사면이 이루어진 곳이다. 조사된

69) 윤무병, 1979, 『연산지방의 백제토기연구』 『백제연구』 10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70) 안승주, 1976, 『논산 표정리 백제고분과 토기』 『백제문화』 9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古墳은 대체로 표고 80m 내외의 높이에서 사면의 하단 즉 계곡간에 형성되어 있는 경작지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한편 수혈식석곽분군의 주변에는 산성이 축조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산성이 축조된 지역은 군사상의 거점이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인 중심지였음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혈식석곽분과 성곽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밝혀진다면 이는 수혈식석곽분 축조지역을 거점으로 상당한 세력 기반을 가진 집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정리 고분군 주변의 산성은 함지봉에 위치한 황산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청동산성, 외성리산성이 분포되고 있어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요충지)을 나타내 주고 있다. 모촌리 고분군이 인접한 곳에는 신흥리산성이 자리하고 있고<sup>71)</sup>, 동으로는 산직리산성이 자리하고 있어 역시 산성과 고분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옹포리고분군에 인접한 곳에도 함라산성과 어래산성이 자리하고 있어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고분의 축조연대와 산성의 축조시기가 일치하는가는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아무튼 고대에 있어 성이 군사적 목적 외에 통치의 치소였던 점을 감안하면 수혈식석곽분이 있는 입지는 교통의 요소인 동시에 일정한 세력의 거점으로 적합한 지역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연산지방과 인접하고 있는 익산 왕궁 동룡리 수혈식석곽분에서 가야계의 유개장경호가 출토되었는데<sup>72)</sup>, 이는 가야사 금강유역으로 진출했던 증거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완주 상운리를 경유하는 교통로와 관련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인근 논산지역에 가야곡이란 지역과 특히 연산 신흥리, 표정리 등의 수혈식석곽분과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산지역에서 운주를 거쳐 진안으로 통하는 루트를 상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연산지역에 이르면 곧바로 논산천과 연결되며 강경을 거쳐 옹포, 군산에 거쳐 서해로 나아가는 해로가 형성되는 것이다. 금강하구의 옹포리<sup>73)</sup>나 산월리에서 출토되고 있는 가야계 토기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특히 부안 죽막동유적에서 가야계 토기가 다수 발견되는 것은<sup>74)</sup> 금강을 통한 가야의 해상 교통로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71) 안승주·이남석, 1994, 『논산 모촌리 백제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Ⅱ』, 공주대학교 박물관

72) 전북문화재연구원, 2017, 『익산 동룡리 백제고분군』.

73) 최완규, 1995, 『익산 옹포리 백제고분군-1992년, 1993년도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박물관.

74) 국립전주박물관, 1994,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국립전주박물관 학술조사보고서 제1집.

## 5. 맺음말

앞에서 전북지역의 고대문화의 다양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익산 미륵산은 금강과 만경강 수계의 경계 지점에 있고, 미륵산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계룡산과 남쪽으로 모악산에 이르는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미륵산을 중심으로 북쪽 분지형 공간에는 논산천과 강경천이, 남쪽 공간에는 만경강이 흐르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청동기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문화유적이 밀집되어 있다. 특히 마한 성립 이전의 청동기시대의 많은 유적의 분포를 통해서 이 지역은 한(韓)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 환경을 배경으로 미륵산을 중심에 둔 익산 지역에서 마한이 성립되게 된 것이다.

서부 평야지대에는 마한문화를 근간으로 백제에 의한 영역화 이후에도 마한 전통의 분구묘가 5세기 말 이후까지도 지속해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부 산간지역에서는 가야계의 분묘들이 축조되고 있어 서부 평야지대와 다른 문화양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적 양상을 가진 전북지역에도 백제의 근초고왕과 무령왕대 영역확장 과정에서 점차 백제의 중앙 문화가 확산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남원 초촌리와 정읍 신정동 등에서 보이는 웅진유형의 석실분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백제는 사비시대에 들어서 전라 북서부지역과 남서부 지역의 통할을 위해 백제는 정읍 고부일대에 중방성을 설치하고, 동부산간지대의 가야세력을 비롯한 다양한 세력을 통할하기 위하여 남원 일대에 남방성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백제 오방성 가운데 중방성과 남방성을 전라도에 설치함으로써 전라도 지역은 백제의 완전한 영역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동부 산간지대에 가야문화가 이입되기 이전에는 서부지역과 같이 마한 백제에 기반하고 있었지만, 400년 고구려의 남진에 의한 가야 사회의 격변과 장수왕에 의한 한성백제의 함락이라는 커다란 사건을 통하여 전북가야의 성립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북 동부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야문화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가야의 정치체가 자리 잡고 있었던 중심 지역은 지리적인 면에서 전면에 하나의 분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완충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지리적 방어가 유리한 분지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계분지의 삼봉리 고분군의 피장자는 장수지역을 지배했던 최고의 계층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고분의 규모나 내부시설, 출토유물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아영분지의 월산리를 비롯한 고분군 보다는 규모나 출토유물에서 한 단계 낮은 위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수지역 고분군의 공간적 범위나 고분군의 숫자에서 보면 결코 남원지역에 못지않은데 이는 장수 가야의 뒷배경이 되었던 백제와 긴밀한 소통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수지역의 고분 특징은 산지맥의 날등을 이용하여 고대하게 보이기 위한 봉분을 조성하고 있다. 경사 방향을 따라 삭토하여 정리하거나 또는 성토하기 때문에 타원형의 봉분 형태가 만들어지고 주석곽 방향도 그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의 봉분 내에 대형의 주석곽과 소형석곽이 다장 형태로 안치된 예가 많은데, 대부분 그 성격을 순장곽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석곽과 동시 축조라는 층서적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봉분의 범위를 벗어나는 예도 있고, 심지어 주석곽은 조성되지 않고 소형석곽만 있는 경우도 있어 모두 순장곽이라는 관념에서 탈피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고분 축조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혈연적 관계 속에서 배장적 성격의 다장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있다.

삼봉리나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주석곽의 상면에서 노출된 주공흔과 꺾쇠의 출토를 통하여 목관우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시신 운반 및 안치를 위한 목관의 시설이라기보다 안치용 목곽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한다.

아영고원 일대의 가야문화 중심권역에서 조사된 수혈식석곽분에서 대가야 양식의 토기가 출토되어 이 지역이 대가야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 월산리에서 출토된 철지상감환두대나 철제 갑옷 및 마구 등은 다른 가야소국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위세품이라 할 것이다. 특히 월산리 M5호분에서 출토된 중국제 청자계수호와 철제 초두는 백제와의 정치적인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금동제 신발편이나 청동거울에서 무령왕릉 출토품과 비교되고 있는데, 역시 당시 국제적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백제와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장수지역의 고층 고분군과 철관련 유적, 그리고 봉수와 더불어 전북가야의 독자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독자성을 가지고 성장한 전북가야는 백제와 친연적 관계 속에 있었음은 하나의 고분에서 백제와 가야토기가 발견되고 있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진안에서 금산을 거쳐 논산천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에 해당하는 연산지방의 가야계 수혈식석곽분과

유물은 백제 수도였던 공주나 부여에서 머지않은 영토내에 전북가야의 거점이 백제 중앙의 목인하에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백제 사비시대에 들어서는 전북가야와 백제의 친연적 관계는 백제의 남방성이 남원에 설치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백제 남방성의 설치는 낙동강 서안의 가야 세력이 변한을 기층문화로 배경이 되었다면, 전북 가야는 마한문화가 기층문화였기 때문에 백제와 역동적 교류를 통한 친연관계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논문접수일: 2022. 02. 28. / 심사개시일: 2022. 04. 01. / 게재확정일: 2022. 04. 06.

## 참고문헌

- 『三國志』 .
- 『後漢書』 .
- 『三國史記』 .
- 『三國遺事』 .
- 『高麗史』 .
- 곽장근, 1995, 「전북 장수군의 유적현황과 보존실태」, 『호남고고학보』 2집.
- 곽장근, 1999, 『호남 동부지역 석곽묘 연구』, 서경문화사.
- 곽장근, 2004,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세력과 그 성장과정」, 『호남고고학보』 20집.
- 김원룡, 1977, 「익산지역의 청동기문화」, 『마한·백제문화』 2집.
- 신채호, 1982, 「삼조선 분립시대」, 『조선상고사』, 진경환 주역, 인물연구소.
- 안승주, 1976, 「논산 표정리 백제고분과 토기」, 『백제문화』 9집.
- 양기석, 2013, 「전남지역 마한사회와 백제」, 『전남지역 마한소국과 백제』, 학연문화사.
- 오동선, 2020, 「남원 아영분지 고총고분 조영세력의 변천과 성격」,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과 월산리 고분군 조사성과와 의의』,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윤무병, 1979, 「연산지방의 백제토기연구」, 『백제연구』 10집.
- 이병도, 1976, 「삼한의 제소국문제」,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 전영래, 1985, 「백제남방경역의 변천」, 『천관우선생 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정음문화사.
- 전영래, 1990, 「마한시대의 고고학과 문헌사학」, 『마한·백제문화』 12집.
- 천관우, 1989, 「마한제국의 위치시론」,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 최완규, 2020, 「전북지역 마한과 백제, 그리고 가야의 역학관계」,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보 특집호, 호남고고학회.
- 최완규, 2013, 「김제 벽골제와 백제 중방성」, 『호남고고학보』 44집, 165-196쪽.
- 최완규, 2015, 「마한성립의 고고학적 일고찰」, 『한국고대사연구』 79권, 47-96쪽.

- 최완규, 2018a, 「전북지역의 가야와 백제의 역동적 교류」, 『호남고고학보』 59집.
- 최완규, 2018b, 「최근 고고학 성과로 본 백제왕도 익산」, 『고도익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회의』,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최완규, 2019, 「백제도성과 익산」, 『마한·백제문화』 34집.
- 한수영, 2011, 「만경강유역의 점토대토기문화기 목관묘 연구」, 『호남고고학보』 39집.
- 군산대학교박물관, 1998, 『장수 삼고리고분군』.
- 군산대학교박물관, 2005, 『삼봉리 고분군·동촌리 고분군』, 장수군·문화재청.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3, 『남원 월산리고분군발굴조사보고서』.
- 윤덕향 외, 1989, 『두락리 발굴조사보고서』, 전북대학교박물관.
- 윤덕향 외, 2001, 『와정유적』, 진안용담댐수몰지지역내 발굴조사보고서.
- 이건무, 서성훈, 1988, 『함평초포리유적』, 국립광주박물관.
- 전북대학교 박물관, 1990, 『세전리 발굴조사보고서』.
- 전북대학교 박물관, 1994, 『행정리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 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남원 월산리고분군-M4,M5,M6호분-』.
- 전북문화재연구원, 2013, 『전주 원장동유적』.
- 전북문화재연구원, 2016, 『군산 선제리유적발굴조사약보』.
- 전북문화재연구원, 2017, 『익산 동용리 백제고분군』.
- 전영래, 1975, 「익산 함열면 다송리 청동유물출토묘」, 『전북유적조사보고』 5집.
- 전영래, 1981a, 「남원 척문리산성 조사보고」, 『전북유적조사보고』 12집.
- 전영래, 1981b, 「남원, 초촌리고분군발굴조사보고서」, 『전북유적조사보고』 12집.
- 전영래, 1983, 『남원 월산리고분군발굴조사보고』,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 동촌리·삼봉리 고분군』.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장수 삼봉리 고분군-1·24·25호분』.
- 진정환, 2007, 「남원 지당리 석불입상고찰」, 『동악미술사학』 8집, 103-123쪽.

최완규, 1995, 『익산 응포리 백제고분군-1992년, 1993년도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박물관.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완주 갈동유적』.

<Abstract>

## Han/Mahan/Baekje/Gaya in Jeonbuk Area

Choi, Wan Gyu\*

Jeollabuk-do province consists of the western plains and the eastern mountainous regions. In the west, Mahan and Baekje cultures form the basis, and in the eastern regions, Gaya culture coexists in various ways with Mahan and Baekje cultures.

In the western region, Mt. Mireuk of Iksan is the central area that separates the water systems of the Geumgang and Mangyeongang Rivers. To the north of Mt. Mireuk, the Nonsancheon and Ganggyeongcheon of the Geumgang water system flow through the basin-shaped plains extending to Mt. Gyeryong, and to the south, the Mangyeonggang River flows to the plains reaching Mt. Moak. In these areas, many relics from the Bronze Age before establishment of Mahan are distributed, confirming that these were the center of Han (韓) culture.

Thanks to the remains of pit tombs which were newly clustered on the basis of the Iron Age culture in the Mangyeonggang river basin and the rituals-related relics, this area is given archaeological evidence to support that Mahan was established here before or after the 3rd century BC.

In the western plains, it is confirmed that the mounded tombs of the Mahan tradition continued to remain based on the Mahan culture until the end of the 5th century even after the territorialization by Baekje. It may thus be assumed that there was power of Mahan's mounded tombs as underground forces of the central castle installed around Gobu in Jeongeup in the age of Baekje Sabi.

Observing the characteristics of Gaya culture in the eastern region from the view of location of central ancient tombs, it seems that it was choosing a basin terrain geographically, which could meet the favorable condition for defending. Besides, a political relationship with Baekje can be inferred from the Chinese artifacts including chicken-spout jars (鷄首壺) which were excavated from the Gaya ancient tombs in Ayoung Basin. The Baekje earthenware excavated from the Gaya tombs in Janggye Basin, however, seems to suggest a deep connection

---

\* Jeonbuk Cultural Property Research Institute

with Baekje, and a central link of it can be found in the Gaya tombs in the Yeonsan region of Nonsan.

During the period of Baekje Sabi, the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Gaya and Baekje in Jeollabuk-do would have been the background for establishment in Namwon of the southern castle, a local organization of Baekje.

Key Words : Han, Mahan, Baekje, Gaya ancient tombs, Central castle, Southern castle